

北韓의 放送政策에 관한 一考察*

劉 載 天

- | | |
|---------------------|---------------------|
| I. 序 論 | IV. 時期別 北韓의 放送政策 |
| II. 言論政策이란 무엇인가? | V. 北韓放送의 特性 |
| III. 北韓放送의 기본성격 | VI. 結 論 |

I. 序 論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불붙기 시작한 통일에 대한 열정과 기대는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88서울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동서냉전 구조의 붕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동구권의 변모와 사회의 여러 운동체들의 통일운동,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등이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고취시켜 왔다. 90년 7월 20일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대교류선언」, 두차례 열린 남북한 총리들의 고위급회담, 북경아시안게임에서 보인 남북응원단과 선수단 사이의 화해 분위기,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통일축구대회, 평양에서 있었던 범민족통일음악회, 코리아 탁구팀 구성,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참가, 한소수교, 독일의 통일 등은 우리로 하여금 통일을 관념으로서만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본 연구는 1990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지난 90년 9월에 발표된 한 신문사의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43%가 10년쯤 후에는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으로 보는 의견까지 합치면 약 85%의 국민이 통일에 대해 낙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응답율은 그 신문사가 같은 설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지난 2년간의 응답율인 88년의 약 51%, 89년의 약 44%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인 것이다.¹⁾ 또한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지정한 응답율은 지난해에 약 40%였으나 올해에는 9%로 나타났다고 한다.²⁾ 이러한 조사결과와 추이는 곧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 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을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극복해야만 할 장애가 너무 많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남북한간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 상호간의 불신, 군비경쟁, 남북한 당국간의 이해상충과 통일의지의 문제 등 허물고 넘어가야할 장벽은 높고 많다. 통일지상주의와 함께 현상유지의 음모도 다같이 경계하면서 통일의 길을 가야한다는 요청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이 다같이 자주·평화·민주·민족단결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쌍방간의 개념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에서도 통일이 형극의 길임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이같은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적 노력에 귀결된다. 그러한 노력의 주체의 하나로 우리는 언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쌍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알 필요가 있다. 상호간의 이해는 거기서 비롯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남북한간의 통일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가짐으로써 통일에 대한 이미지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만 한다. 이러한 구실을 가장 잘 담

1) 중앙일보, 「중앙일보 창간 25돌 기념 국민의식조사」, 1990. 9. 22

2) 같은 신문, 1990. 9. 26

당할 주체는 역시 언론이겠기 때문인 것이다.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해 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인지들이 여하히 구성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간 방송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방송정책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言論政策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일정한 활동영역에서 주체 또는 주체체계의 행동을 설계하는 것³⁾, 혹은 정부가 할 일과 아니할 일을 선택하는 것⁴⁾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은 주어진 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고 장애를 극복하여 목표를 실현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정책을 정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이 통치기관에서 선택한 방향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단지 국가나 정부 등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방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언론정책이란 현실적 의식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전파하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영역에 있어서 언론의 외연기획에 따라 그것을 조종, 유도, 간섭하는 사회정책적 행위라 할 수 있다. Roegele은 언론정책을 언론 영역에 개입하여 언론의 기능과 대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특정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국가정책의 하나라고 정의한다.⁵⁾ 그에 따르면 언론정책이란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조직적 문제, 법적 지위, 기능양식 및 그 인적, 물적 장치와 관련된 국

3) James E. Anderson, Policy-making (New York ; Praeger Pub Inc., 1975) p. 2

4) Thomas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 T. Prentice-Hall, 1972), p. 18

5) O. Roegele, Medienpolitik-und wie sie macht (Osnbrunck, 1973), p. 75

가정책이며, 그로 말미암아 특정 이상 추구와 특정 체제 조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치행정체제의 권력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볼 때 언론정책은 언론과정에 개입하여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국가권력의 조치들의 총체이며, 특히 언론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매체조직적, 경영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조치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언론정책이 있게 되는 근거와 필요 및 문제점은 무엇일까? 누구나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언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사회조직체들을 연결하고 매개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상호작용체제이므로 국가공동체적 동질성을 확보하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정치권력은 언론의 존재와 그것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통치체제와 언론체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며 또 상호규정적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와 대안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그것을 정책에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권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통합과 국민총화룰 도모하는 정치체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언론이 이같은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치체제의 올바른 언론정책이라고 하겠다.

한편 정치권력의 편에서 볼 때 효과적 통치는 효과적인 언론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⁶⁾ 그리하여 국가정책수행의 주체로서 정부는 언론의 중요성을 그의 통합정책의 상태가 달린 관전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통합과 국민의 단결, 결집, 동원율 위한 목적에 대한 수단적 도구로 언론을 이용하려 한다. 즉 정치권력은 언론의 사회통합적 잠재력을 동원하려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취재, 편집, 보도 및 논평의 언론활

6) C. Offe, Politische Herrschaft und Klassenstruktur, in Kress/Senghass (Hrsg.), Politik-Wissenschaft, (Frankfurt, 1969), S. 180f

동 과정에 간섭하여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언론이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럴 때 언론과 정부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해 진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함께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식해야만 할 점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정치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⁷⁾ 이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 보는 바와같이 정치체제의 하부체제로서 언론이 존재하는 경우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불가피한 조건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와 언론의 관계, 즉 통제와 자유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힘을 바탕으로한 '조직간의 갈등'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갈등에서 언론조직의 운영에 필수적 자원인 정보 및 자본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부의 권력행사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언론이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 까닭에 그러하다.⁸⁾

Ⅲ. 北韓放送의 기본성격

공산주의 신문이론은 신문을 "집단적 선전자이며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라고 파악한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의 하나인 「신문리론」에 의하면 북한신문은 선전선동자적 기능, 조직자적 기능, 그리고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그러면 북한언론의 기본적 성격은 무엇일까?

출판보도사업(언론)에 대한 조선 로동당의 방침을 해설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다.¹⁰⁾ 이 정의에 의하면 북한언론의 기본적 성격은 두

7) Fernand Terrou and Lucian Solal, *Legislation for Press, Film and Radio*,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1

8) William M. Evan, "Toward a Theory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Management Science*, vol 11, August 1965, pp. 217-30

9) 배순재, 리두림, *신문리론*, 동경: 재일본 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67, pp. 4~5

10)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5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체'의 언론이요, 나머지 하나는 '김일성주의 혁명'의 언론이다. 이 두가지 성격을 좀 더 부연한 내용을 원전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다. 이것은 우리 당 출판물이 지난 력사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출판보도물이며 주체시대 출판보도물이 지녀야 할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는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다음으로 영광스런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다. 이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북한언론은 다음과 같은 근본원칙을 지켜야만 한다.¹²⁾

첫째, 주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며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진행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출판보도활동에서 당중앙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며 출판보도일군들이 당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고 당의 의도와 당이 내놓는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출판보도활동을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당은 다음과 같은 강조하고 있다.

즉 “우선 모든 출판보도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대로만

11) 같은 책, p. 6

12) 같은 책, p. 22~30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하겠으며, “다른 곳의 말을 듣고 당보를 편집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는 원칙이다. 여기서 “종자를 바로 쥐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기본핵을 틀어잡는다는 것을 말하며 속도전을 벌인다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시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다는 것을 말한다” 종자란 기사와 편집물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력, 즉 ‘사상적 알맹이’인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기본원칙을 전제로 하고 언론매체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방송의 경우 갖추어야할 조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³⁾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방송 또한 주체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방송부문의 모든 일꾼들은 방송사업을 우리 식대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방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¹⁴⁾ 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 방송을 ‘우리 식대로’ 한다는 것은 “방송사업을 당의 의도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방송을 철저히 당에서 세워준 방침과 원칙, 기준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방송내용과 형식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¹⁵⁾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¹⁶⁾ 첫째, 그것은 북한 방송의 성격, 사명과 관련된다. 즉 “우리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목소리이며 주체조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방송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의 혁명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강력한 무기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방송에서 주체를

13) 같은 책, pp. 118-126.

14) 위의 책, p. 118.

15) 위의 책, pp. 118-119.

16) 위의 책, pp. 119-121.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 회의의 계기로 방송 사업에 남아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 요소를 뿌리 뽑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이다. 셋째,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방송사업에서 혁명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방송을 ‘우리 식대로’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당은 세 가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¹⁷⁾

첫째, “방송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송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교시하고 있다.

- ① 방송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옹계 살리자면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② 방송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리자면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③ 방송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리자면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④ 방송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 세계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도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형식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음악, 무용을 비롯한 문예물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 우리 방송은 자본주의 나라 방송처럼 상품광고나 많이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하여 보도경쟁이나 하는 흥미본위주의적 인 방송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선전수단이다.” 이러한 관

17) 위의 책, pp. 121~126.

점에서 북한 방송에서는 '호소성이 높고 감화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음악을 많이 방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셋째, "방송부문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말할 것도 없이 "방송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정연하게 세워진 원칙과 준칙, 기준에 맞게 방송사업을 진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방송 매체의 성격 규정과 그에 따라 방송이 갖추어야만 할 조건들을 살펴볼 때 북한 방송은 김일성 유일 체제를 위한 강력한 선전 도구이며, 따라서 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방송 또한 신문과 마찬가지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위력한 선전 도구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IV. 時期別 北韓의 放送政策

북한의 방송정책은 조선로동당의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송의 조직, 법적 지위, 기능양식 및 그 인적, 물적 토대와 관련된 당과 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정책은 시기마다 로동당이 추구했던 목표, 즉 체제 조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당의 방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방송정책이 어떠한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편찬한 「조선력사」 제22권과 제23권을 보면 북한의 言論史는 모두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 즉 (1)항일무장투쟁시기(1920년대~1945. 8. 14) (2)민주건설시기(1945. 8. 15~1950. 6. 24) (3)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 25~1953. 7. 26) (4)사회주의건설시기

(1953. 7. 27~1969. 12) (5)사회주의 성숙시기(1970. 1~현재)의 언론으로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이 시기들 가운데서 8.15이후의 북한의 방송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민주건설시기(1945. 8. 15~1950. 6. 24)의 방송정책

이 시기는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볼 때 적어도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북조선로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이라는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는 시기로서, 그같은 정치투쟁을 위해 선전전과 문화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는 북한방송이 탄생한 시기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북한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민대중에게 새 조국건설 로선과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 로동당은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전신으로 「정로」를 창간하며, 「조선중앙방송」을 설립했다. 이 때 김일성은 북한언론이 지니고 추구해야 할 성격으로 세가지틀 규정하였다. 그것은, 첫째 북한언론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진정으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언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언론활동에서 그 어떤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적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언론이 철저히 당 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로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언론의 내용과 형식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의 구미에 맞으며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¹⁹⁾ 이 가운데서 첫번째로 강조한 것으로 되어있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언론이어야 한다는 표현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주체사상」이나 「주체의 언론」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언론이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1년 1982년에 북한의 언론사를 집필한데서 초래된 결

19) 앞의 책, p. 162.

과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목표나 언론매체 건설을 위한 구도 아래서 방송이 창설된다. 김일성은 “방송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송은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달성하고 있는 성과들을 국내외에 광범히 소개선전하며 원수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인민대중을 새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라고 강조하여 방송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²⁰⁾

그러나 북한에서 새로운 방송체계의 구축은 몇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해방과 더불어 북한정권은 일제하의 방송기관과 그 시설들을 장악하지만 “방송을 운영할만한 방송 일군이 거의 없었고 방송의 물질기술적 토대도 매우 빈약하였을 뿐아니라 그것마저 일제의 파괴책동에 의하여 모조리 망가졌다. 또한 온갖 반동들과 종파분자들이 제가꿈 방송을 장악하고 거기에 주구들을 잠입시켜 제놈들의 야망을 실현할 방송을 불어대려고 책동”했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송체계를 세우기 위해 방송을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직접 관할토록 하여 방송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당에서 인력을 충당하며 방송종사자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북한방송이 시작되기에 이른다.

북한방송은 조선중앙방송인 평양방송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실황중계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중앙방송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그 이름이 「평양방송」에서 「평양중앙방송」, 「북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방송」으로 바뀌어졌으며, 지방방송들이 중앙방송을 의무적으로 받아 중계하는 통일적인 방송체계가 세워진 것이다. 이 시기의 방송정책은 따라서, ‘로동당의 목소리’로서의 북한방송을 체계화 하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이때로부터 중앙방송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속에 신

20) 「김일성저작집」 3권, p. 291.

21) 김영주, 이범수편, 같은 책, p. 164.

속정확히 해설선전하고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폭로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성원의 목소리를 높이었다. 중앙방송은 또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여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해 나갔다” 이같은 북한방송의 사명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²²⁾

(2)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 25~1953 7. 26)의 방송정책

이 시기 북한의 방송정책은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역량과 수단을 전쟁승리에로 복종시키며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면서 출판보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는 데 포괄된다.²³⁾ 그리하여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매체는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역도들의 침략정책과 략탈성을 폭로하는 자료, 우리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알려주며 인민군대의 승리적 진격과 전투모습을 알려주는 자료,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 해방후 민주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료들을 더 많이 소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요컨대 이 시기의 방송 정책의 핵심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널리 선전하며, “모든 것을 미제와 리승만역도를 격멸소탕하는 데 바치도록 인민들을 고무격려”한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송실무에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첫째, 방송기구를 전시체제에 알맞게 개편한 것으로 군사생활부를 신설하고 여러개 부서를 통합하여 후방 생활부로 개편했다는 점, 둘째 남한 점령지역의 방송을 장악하여 전쟁승리를 위해 봉사토록 했다는 것, 셋째 방송화술의 새로운 체계화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

22) 앞의 책, p. 165.

23) 앞의 책, p. 180.

24) 앞의 책, p. 181.

은 새로운 방송화술의 체계화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51년 5월 문화선전부문 책임일꾼들에게 방송은 당의 목소리이며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선전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방송화술체제를 새로 세우도록 교시했다. 이같은 교시에 따라 방송문화부문 일꾼들과 언어학자들은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옹계 살리면서 원썩격멸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을 훌륭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더욱 세련시켜 과학적인 화술체제를 세웠다”²⁵⁾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 정립한 방송화술체제의 특성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이라는 데 있다. “로동자, 농민의 말에 토대하여 어조와 억양, 말투가 힘있고 전투적인 것으로 급속히 세련되어갔다. 우리 말과 화술의 표현체제도 매우 다듬어졌다. 감격적인 장면을 나타내는 말과 증오를 표시하는 말, 투쟁과 창조에로 부르는 호소적인 말과 원썩를 격멸하고 전주하는 말, 장중한 말과 장쾌한 말등 다양한 감정정서적 계기들을 특징짓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화술이 과학적으로 체계화되고 규범화되었다”²⁶⁾ 요컨대 새로운 화술이란 어조와 억양, 말투를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 때 만든 방송화술은 지금까지 북한 방송의 화술로서 정착되었다.

(3) 사회주의 건설시기(1953. 7. 27~1969. 12)의 방송정책

이 시기는 다시 둘로 나뉘어 출판보도기관의 복구와 정비기(1953~1960)와 출판보도사업의 발전기(1961~1969)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1953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시기의 방송정책은 두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전쟁후의 경제복구정책에 방송이 앞장 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무기로서 제구실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전쟁중에 피해를 입었던 언론기관들을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5) 앞의 책, p.186.

26) 앞의 책, p.186.

북한은 전쟁후 철저히 파괴되고 붕괴된 경제의 복구에 전력을 다하게 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수단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발달시키는 데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인 언론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절박한 요청에 당면하여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언론의 복구와 정비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전후에 우리 당과 정부앞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들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에서 파괴된 문화선전기관들을 복구 정비하며 그 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²⁷⁾ 이른바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며, 방송은 당의 요청에 부응하여 1954년 2월 전후 인민경제복구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방송위원회 안에 경제와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문화교양을 담당할 수 있는 군중문화부와 후대교양을 위한 아동문예부를 조직하는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일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방송은 언어문학강좌, 공업농업강좌를 비롯하여 과학과 문화, 라디오상식 등을 편성하기도 했다

다음 1961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10여년간의 방송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당의 언론정책을 구현하는 데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상교양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 시기에 “우리의 출판물, 라디오, 문예작품을 비롯한 모든 교양수단이 당의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단위들에서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것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²⁸⁾ 이 말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것”을 언론의 제일차적 과업으로 내세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

27) 「김일성저작집」, 제8권, pp.37~38.

28) 「김일성저작집」, 제5권, p.295.

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일체 불건전한 사상독소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⁹⁾ 둘째,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문화교양자료를 더 많이 방송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일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실과 관련하여 강조되었던 점은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옮겨 결합하는 문제였다. 즉 언론이 정치선전 일면에 치우치거나 경제선전 일면에 치우치는 편향을 다같이 극복하고 정치선전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면서 경제선전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데 효과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언론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거대한 혁명적 양양을 불러일으키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데서 거대한 조직선전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요청이다.³⁰⁾

이와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은 1963년 11월 12일 방송부 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여 중앙방송체계의 구성문제와 함께 전국의 유선방송체계를 세우며 텔레비전방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교시했다. 북한의 전지역을 유선방송화 하는 계획은 1958년 9월 29일자 내각명령 제 103호로 이미 지시된 바 있었다. 「도시·농촌을 전반적으로 유선방송화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명령에서 8.15해방 15주년 전으로 도시와 농촌에 유선방송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체신청과 기계공업성은 180만대의 실내고성기, 4천대의 가두고성기, 총출력 천키로와트에 달하는 수다한 유선방송기를 생산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8.15 15주년인 60년 8월 15일까지 그같은 내각의 명령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1963년 11월에 김일성

29) 김영주, 이범수편, 같은 책, p.193.

30) 앞의 책, p.197.

이 다시 전국의 유선방송화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7개년 계획기간에 전국의 유선방송화가 완성되며, 1963년 3월 3일에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결합하는 일과 관련하여 중앙방송은 경제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들이 기자들과 특파기자들을 선정하여 이른바 「6개고지편집부」를 조직하여 각 고지별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방송선전을 강화하였다. 「방송고지편집부」란 각 생산 현장에 들어가 근로자들의 성과를 축하해 주고 그들의 결의를 표명케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방송을 담당한조직이다. 이를 「방송야회」라 하여 새로운 선전선동형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 사회주의 성숙시기(1970. 1~현재)의 방송정책

이 시기 북한의 언론정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한의 사상적 변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주성을 옹호하자’고 함으로써 최초로 주체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선포한 이후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초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내세우고,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제외하였다. 그 뒤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주체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켰다. 바로 이같은 사상적 변신이 이 시기 언론정책의 핵심을 규정하는 것인 동시에, 이 시기 북한언론의 성격을 「주체의 언론」으로 못 박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言論史는 이 시기의 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주체형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더욱 빛나게 수행하였다.”³¹⁾

즉 이 시기 북한의 언론정책은 “은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 그 기본 임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고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 데” 있었다.³²⁾

이같이 「주체의 언론」이기 위해 이 시기에 당중앙에서는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언론으로 하여금 실천토록 했다. 이같은 3대 언론혁명이 말하자면 이 시기의 핵심적인 언론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³⁾

첫째,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신문, 보도, 출판분야에 남아있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김일성주의 출판보도선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①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점, “②당면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그같은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①출판보도선전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항일유격대식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즉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취재집필활동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

31) 앞의 책, p.209.

32) 앞의 책, p.209.

33) 조선로동당출판사,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1985, pp.50~57.

이 발양하여야 하며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을 전투적이고 호소적이며 참신하고 다양하게 통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출판보도선전에서 속도전, 사상전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형식이며 사상전은 속도전의 원칙을 사상사업분야에 구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위력한 방법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물고 해설선전해야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당정책이 관철 될때까지 선전활동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③기자·편집원들이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준비되는 것이다.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라 배우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 당의 방침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유일체제의 공고한 구축을 위한 도구로 언론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시기의 방송정책에서 뚜렷이 지적한 점은 두가지라 생각된다. 하나는 “방송혁명의 중심고리를 방송음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두었다”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는 전국의 텔레비전화의 실현이다. 이 두가지 방송정책은 김정일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유의할만하다고 하겠다. 즉 이 시기에 김정일이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정책과 문화정책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음악의 개선이란 특히 음악을 독자적인 교양물로 이용하며 방송에서 음악편성비율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방송음악 전반을 명곡화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방송에서는 말을 요긴한데서만 하고 시대적인 분위기를 음악으로 알려주며 사회주의 대건설로 들끓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음악방송을 강화하고 방송화술을 개선함으로써 방송의 전투성과 호소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³⁴⁾

1970년대에 들어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언론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북한 전지역의 텔레비전화라고 그들은 자평하고 있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전국의 텔레비전화는 텔레비전 방송의 출력을 높이고 세대마다 수상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물적 토대의 구축으로 집약된다. 1971년에 비해 1976년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출력이 4배에 이르며 전국에 수많은 텔레비전 중계소가 설치되었으며, 1971년부터 록화방송체제를 전환하고 1974년에 천연색방송이 개시되었다. 그리하여 1977년부터는 전반적인 천연색방송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V. 北韓放送의 特性

1. 放送話術

앞에서 김일성의 교시로 방송화술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것으로 개선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방송화술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화술로 되게 한다는 것은 방송원들이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도 억양에서 모가 나게 하고 격조높게 함으로써 언제나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열정이 넘쳐나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 왜 방송화술이 전투적이며 혁명적이어야 하는가? ①그것은 바로 북한방송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연유하는 요구라는 것이다. “방송은 그 자체가 소리를 통한 선전수단인 것만큼 화술이 없이는 도대체 방송이라 말할수 없으며 방송의 위력도 방송원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34) 김영주, 이범수편, 같은 책, p.211.

35)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pp.126~132.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 방송이 투쟁하는 당, 혁명하는 나라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자면 마땅히 방송원들의 말에서도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열정이 차넘쳐야 한다”는 것이다. ②인민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라고 한다. 즉 “맥이 없고 정열이 없는 늘크데한 화술로는 인민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방송원들이 한마디 말을 해도 쇠소리가 나고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열정이 넘쳐 나게 해야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 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투쟁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①방송원들이 우리 당의 목소리를 온 세계에 전하는 당사상전의 전초선에 선 혁명전사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는 것이다 ②방송원들이 문화어화술훈련을 정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③방송원들이 화술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2. 음악편성

북한은 방송음악편성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노래들을 정책적요구에 맞게 선택하고 그 배열을 짜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음악편성을 잘한다는 것은 방송음악을 사상예술성과 명상수준이 높은 좋은 노래들로 선택하여 인민대중의 요구와 기사내용에 맞게 잘짜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³⁶⁾ 그러면 방송음악편성과 관련된 북한방송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³⁷⁾

첫째, 방송에서 음악편성을 잘해야만 할 까닭은 두가지 때문이다. 우리 방송의 품위를 높이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방송음악은 그 나라 예술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인만큼 방송에서 수준이 낮은 노래를 내보내면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뿐 아니라 나라의 대외적

36) 앞의 책, p.132.

37) 앞의 책, pp.132~140.

권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음악편성은 주체예술의 영예를 빛내이고 우리 인민의 슬기와 기개, 주체조선의 위용을 시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②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음악은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남달리 음악을 좋아했고 오늘 우리 인민들의 음악감상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 인민의 이 높은 요구에 맞게 방송에서 혁명적이며 투쟁적인 노래를 많이 내보내야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에서 음악편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 “①방송음악편성에서 당정책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송가를 비롯하여 충실교양성,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노래들을 위주로 하여 방송음악을 내보내야 하고, 방송음악을 매 시기 당에서 모를 박고 해결하려는 문제에 지향되고 집중되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사의 사상적 내용과 보도의 성격에 맞게 잘 편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방송음악을 당정책요구에 맞게 편성하는 데서 방송별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방송음악을 명곡을 위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인민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또 부르고 싶어하는 좋은 노래들을 위주로 방송음악을 내보낸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정해주신 명곡을 기본으로 하여 음악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음악편성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그들의 일과생활에 맞게 하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는 좋은 노래들을 아침시간, 낮시간, 저녁시간, 밤시간에 시간마다 특성있게 편성하여 내보내야 한다. ④방송음악편성원들이 높은 정치사상수준과 깊은 음악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3. 문화성, 예술성, 사상성

김정일은 특히 텔레비전방송에서 문화성, 예술성, 사상성을 철저히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텔레비전이 문화성, 예술성, 사상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비전에서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예술적 형상수준이 높으며 맑고 아름답게 형성된 화면을 내보내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문화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들의 옷차림, 주위환경등 모든 것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형성한다는 것이며 예술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높은 예술적 형상수준이 보장된 작품들만 텔레비전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며 사상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적으로 견실한 것을 가지고 텔레비전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³⁸⁾

그러면 왜 텔레비전에서 문화성, 예술성, 사상성을 견지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①텔레비전방송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텔레비전방송의 품위를 높인다는 것은 당의 목소리, 주체조선의 얼굴로서의 높은 권위에 상응하게 우리 텔레비전방송이 그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에서 자기의 면모를 손색없이 갖추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대중의 사상수준을 높이고 문화혁명을 다그쳐 나가는데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텔레비전방송은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선전전동수단이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에서 문화성, 예술성, 사상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①텔레비전방송일꾼들이 언제나 사상적으로 견실한 것을 내보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그 반동적목적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주의를 사회정치생활의 근본문제나 관련이 없는 면데로 돌리기 위하여 무사상성과 흥미본위주의를 고취하면서 텔레비전방송을 상품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텔레비전방송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선전수단인 것만큼 그 사

38) 앞의 책, p.140.

상성을 떠나서 순수한 예술성과 문화성을 생각할 수 없다. ②텔레비존에서 품위있고 예술적 형상수준이 높은 것만 내보내야 한다. 텔레비존방송에서 인기는 품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품위를 잃구면서 인기를 추구하면 흥미본위주의에 떠어지게 된다. ③텔레비존화면을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형상하여야 한다.³⁹⁾

VI. 結 論

1970년 10월 1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날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송절」로 제정하는 정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⁴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 선전선동활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나라 방송은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선전수단의 하나로서 전체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당 선전력량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전체 방송부문 일꾼들은 지난 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현대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해방후 북한의 언론매체를 창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⁴¹⁾

“지금 조선에서의 싸움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이며 선전전 문

39) 앞의 책, pp.140~146.

40) 「로동신문」 1970. 10. 15

41) 「김일성저작집」 제2권, p.233.

화전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우리는 오직 인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정의와 진리를 대중속에 잘 선전하고 해설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같은 어록들과 지금까지 살펴본 시기별 북한의 방송정책들에서 북한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방송은 김일성유일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교양자이며 문화교양자인 것이다. 현재 북한의 방송은 「주체의 방송」이며 「혁명의 방송」이라는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 김일성유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선전선동매체로서 언제나 당의 정책목표, 즉 체제조건적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정책은 매 시기마다 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제현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